

[보도자료]

‘이동관 탄핵!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토크콘서트

배포(배포즉시 보도): 23.11.28.(화)

야4당, 언론노조, 기자협회 이동관 탄핵 D-1(29일) “언론장악 저지” 한목소리
야4당 지도부, 언론현업단체, 원로언론인 등 “이동관 탄핵 당위성” 강조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야4당 공대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보고가 예정된 국회본회의 개최 하루 전인 11월 29일(수) 6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언론노조 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 원로언론인 등의 언론계와 학계, 시민단체 및 야4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현 정권의 언론탄압 상황을 공유하고, ‘언론탄압 기술자’ 이동관에 대한 탄핵이 언론자유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며 권력의 방종장악을 차단하는 길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 정권은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보도로 인한 MBC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KBS 수신료 분리고지, YTN 민영화 추진, 언론사·기자 압수수색, 야권 추천 방통위, 방심위,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부당한 해임, 법적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 심의를 빌미로 한 언론검열제도 부활 등 전방위적인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언론탄압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 추천 2인으로만 파행 운영(방통위법 위반)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경위서를 요구(방송법 위반) ▲방심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가짜뉴스 대응을 추진(직권남용)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방문진 이사를 추가 해임(방문진법 위반) ▲KBS 이사회 사장 선임 과정의 파행을 방관(방송법 위반) 등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야4당 공대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야4당 공대위원들이 이동관 탄핵추진 결의문을 낭독하고, KBS·YTN·MBC 노조가 각각의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

다. 또한, 전국언론노조가 이동관 탄핵을 위해 추진해 온 대국민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델리민주, 팩트TV, 민중의소리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 됩니다.

※ 관련 문의 : 안순모 보좌관(010-5203-6106 / 고민정의원실)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 WORKERS

 한국기자협회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윤석열정권 언론탄압저지 04당 공동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O기본소득당 진보당

<끝>